

62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16차
일시	20. 5. 25.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1 /12)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총
○	○	○	○	○	○	○	○	x	○	○	○

□ 보고 안건

1. 단위별 특이사항 보고

간호 - 피드백 설문 진행 중, 학장님께 전달 예정

자대 - 단학대회 예정

사과 - 6월 2째주 온라인 단학대회 예정

인문 - 이번주 수요일 단학대회 예정, 기말고사 관련 요구안 위해 중간고사 진행 예시 취합중

경경 - 수요일에 학장님과 간담회 예정, 학생들 의견 강력하게 전달 예정

2. 확대운영위원회 진행 안내

- 6/3(수) 19:00 예정
- 5/26(화) 리허설 진행 예정
-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는 것이 주 목적. 한 시간 정도 소요 예정.
- 사전질의에 관해서는 안건세부내용 확정 이후부터 확운위 날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단운위까지 안건 세부내용 전달 후 질의받을 예정.
- 확운위 대체 운영에 따른 발언권 축소로 인해 진행하는 만큼, 확운위 구성원이 아닌 단운위 구성원에게도 질의 받을 계획.
- 질의 내용이 많을 경우 다 답변해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확운위 안건에 한해서만 질의응답 진행.

□ 논의 안건

1. 20학년도 1학기 예산자치제 지원 결정

- 지난 회의 때 유보되었던 결정을 이번주 추가자료를 토대로 재논의 진행
- 청우회의 경우 축구공 10개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로 훈련영상 제출완료
- 아마농구 청룡의 경우 1학기에 한한 내용으로 재제출.
- 청우회 :
축구공 10개의 필요성에 대한 증빙자료와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10개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되며, 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이전에 지원 사례를 미루어보았을 때,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또한, 이 지원으로 인해 타 단위가 지원을 못받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함.
지원해주신 항목 '10개'을 중운위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19-2학기 예산자치제 케이스를 미루어보았을 때 실 사용금액의 일부분도 지원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축구공 가방에 대해서는 소모품보다는 운영을 위한 기자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
- 의결) 청우회-신청한 244,850원에 대해서 지원한다. 찬성 9 반대 0 기권 2 > **가결**
- 의결) 아마농구 청룡-신청한 800,000원에 대해 지원한다. 찬성 11 반대 0 기권 0 > **가결**

2. 확대운영위원회 안건 세부내용

- 심의)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 의결) '총학생회 회칙' 개정

집행국, 집행부서, 집행위원회 등 용어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집행 기구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의결)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개정

단위별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감사를 받지 아니한다고 의결 시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의결)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회칙' 제정

: 특별내규의 의결권한을 중운위에 둘 것인지, 위원회 혹은 총학생회 내부에 둘 것인지. 의견이 궁금함.

인권복지위원회 사물함 관리 내규, 문화위원회 공간조정회의 진행 내규 등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위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또한 실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뀔수도 있어, 중운위 의결절차를 거친다면 번거롭고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됨.

22조 내규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혹은 총학생회 내부 의결로 수정.

23조 전학대회 혹은 그에 준하는 의결단위에서 개정 으로 수정.

15조 오타 수정(제 17조)

8조 부위원장 임명에 대한 내용 추가

14조 오타 수정 2/3 이상'의'

내규 개정 시에 이에 대한 공지 부분 추가

총학생회 회칙에도 집행국과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심의)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진행]

Q. 사과-한 학부에서 예산안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질문 드릴 점이 있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학부(과) 내부의결을 통해 감사받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렇게 안내가 되었다. 하지만 중감위에서 말씀해주시기를 최종적으로 회칙에 서술되어있지 않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하셨다. 또, 학과에서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문의도 아니하고 이제와서 문의를 하느냐는 말도 좀 의문이였다. 중감위는 학부(과)가 회칙을 이해시키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단위에게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 온라인상으로의 대화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회칙 어디에도 불이익이 있다라는 내용은 없다.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언론에 전달하여 공개한다고 하셨다. 감사 종료 이전에 외부 유출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역시 궁금하다. 이와 별개로 회칙 부칙에 '8월부터 감사를 한다'라고 쓰여있는데, 예산안 받는 것은 감사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이는 회칙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된다.

A. 크게 4가지 정도 질문해주신 것으로 생각되고 하나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다. 해당단위에서 먼저 불이익이 있냐라고 물어봐주셔서 자연스럽게 해당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감사받지 않겠다는 총회 의결 결과가 없다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언론을 통하여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중감위 사과대 위원과 해당 단위의 대화에서, 집행예산이 약소하고 예산을 유동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예산안 제출이 어렵다고 입장문을 받았다. 이후 답변에 있어서 유한 말을 쓰지 못한 점 죄송하다. 중감위 회칙상 의무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의무라고 표현하였다. 중감위의 잘못된 점도 있고 이에 대해 사과드리지만, 회칙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해당 단위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한다.

회칙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칙 부분은 예산안 제출 요청을 했을 때 문제시 되지 않아 중감위도 인지하지 못했다. 제출받은 1학기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를 진행완료하였다.

Q. 이번에 받은 예산안 자료는 다음 감사를 위한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인지하여 제출하였다. 부칙에 따라 이번 1학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A. 그렇게 진행하겠다.

Q. 자연대-작년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했더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받았으나 이후 결정이 바뀌었다.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중감위 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Q. 지각제출과 미제출에 대한 사유서 양식이 전무하다. 양식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A. 이번에 요청드릴 때 사유서를 요청하진 않았고, 사유를 알려달라고 전달했으나 오해가 있었던 것같아 사과드린다.

A. '감사대상이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감사받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감사하지 않는다' 조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 이 부분은 회칙 개정에 추가하는데 동의한다.

Q. 학부단위에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있는지?

A. 아직은 중운위를 경유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고, 위원장에게 따로 연락을 주신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소통하고 있다. 학과부 별 회계담당자의 연락처를 요청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소통창구의 추가 개설이 필요해보인다. 단과대학 단위를 경유하기 보다 학과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있어야 오해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 네 노력하겠습니다.

Q. 단위별로 위원들이 선발되었는데, 해당 위원들이 과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제가 단과대학 대표자이긴 하지만 학과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다. 위원들이 단위 특수성을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Q. 언론사에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감위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게시하고,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취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A.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많은 학우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이고, 공유해드려야한다고 생각한다.

Q. 홍보나 정보의 더 넓은 공유를 위해서라면 중운위를 통해 공유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중운위 차원에서도 협조하겠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감사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음.

회칙상 종강 후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8월달로 넘어가면 해당 회칙에 위배된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데에 동의하고, 회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8월 감사는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

3. 학사운영 피드백

- 교무위원회가 6/2 열릴 예정인데 그 때 결정이 된다면 많이 늦다고 생각된다.
 - 학교본부,교수님들과의 간담회가 빠르게 필요하다.
 - 비대면 시험 원칙으로 전환하는게 안전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논의를 통한 결정 역시 중요하다.
 - 학교에서 교수의 재량권을 이유삼아 더 이상의 결정이 어려운만큼, 교수님들과 이야기해보자.
 - 우선 비대면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총장단과의 간담회를 이번주 내로 진행하고, 간담회 성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 시험지지 릴레이 이벤트 진행을 차선택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코로나 미워요 시험은 집에서'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손글씨 릴레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을 듯 하여, 공유 형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 듯.

□ 기타 안건